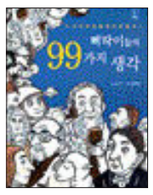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비밀이 생겼어요=광주에서 활동하는 동화작가 이현(최현 한방의원 간호실장)씨가 펴낸 동화집으로 초등학교 1~3학년에게 권할만하다. '우리 집 앞을 지나', '꿈을 찾는 술래', '가슴이 떨려', '바다속 여행', '샘물이 퐁퐁퐁', '너만 좋아할 거야' 등 동화 6편이 수록돼 있다. 〈채우리·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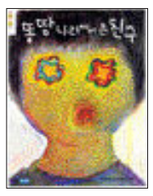
▲고미 타로의 사계절 그림책(전4권)=사계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계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계절의 향기를 전하는 그림책.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계절의 특성을 간결하면서도 반복된 문장과 서정적 이미지로 풀어내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리듬감을 준다. 〈미래 M&B·각권 9천800원〉

▲삐딱이들의 99가지 생각=어린이들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호기심과 상상력이 넘치도록 발견과 발명에 관한 일화와 시대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도구를 발명하게 된 원동력인 불에서부터 금속활자, 지렛대의 원리, 나침반, 천체망원경, 증기기관차, 상대성 이론, 복제양 돌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바꾼 99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거인·1만원〉



▲교실밖의 한국사(제4편)='솔이와 함께 떠나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의 전체를 알려주는 길잡이로 생활상, 사상. 경제, 정치 예술 등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논술'코너를 함께 구성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청솔·8천500원〉

▲똥땅나라에서 온 친구=한겨레 문학상 수상작가인 박정애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펴낸 동화책. 아빠의 죽음 이후 대식증에 걸린 아이가 똥땅나라에서 온 슬라임의 도움으로 아픔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이야기. 〈웅진주니어·8천원〉



손가락에 핀 꽃 '옹이'가 아름답다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본다 최일남 지음

손 예찬·우리말과 글 등 27편 해학적 언어로 풀어 쓴 산문집

소설가 최일남(73)의 작품 읽는 맛은 재미있는 '스토리'와 함께 내용을 풀어내는 남다른 어휘력에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낯설지도 않은 말들을 쏙쏙 뽑아낸 '해학적인' 언어는 그의 소설을 맛깔스럽게 만든다.

그는 '우리말은 표현의 틈을 저밀 수 있는 데까지 저며 제일 정확한 놈을 골라내는 작업을 거쳐야 '진국'이 된다'는 생각에 어휘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작가다

그가 13년만에 펴낸 산문집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본다'에 실린 27편의 글 역시 그의 '글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책으로 일군의 젊은 작가들이 써내는 감상류의 에세이나 보통의 산문집과는 다른 '무게'와 '연륜'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진지한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의 펜을 거치면 약간은 무거운 주제도 '재미있게' 읽히는 덕에 책장은 쉽게 넘어간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유년시절의 기억부터 학창시절, 작가 데뷔 풍경등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국민학교 1학년 맨 앞자리가 6학년 교실까지 '시종일관' 이어진 어린 시절 세계 위인 중 키 작은 인물의 이름만 스무명을 외웠던 이야기, 대학 은사였던 수필 '오척단구'의 저자 이희승 선생과 키를 대 본 사연, 전주서 나고 자라 처음 서울에 입성했을 때 기를 죽이던 서울 토박이 말씨, 대학 시절 '시골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올라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좔좔 흐르는 언변과 논리정연한 글로 동기들을 기죽이던 '어령이'(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이야기 등을 해학넘치는 언어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표제작인 '어느날 문득 손을 바라본다'는 '손'에 대한 예찬이다. 언론인으로, 작가로 긴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살아온 역사의 징표이자 응고인 '가운뎃 손가락의 돌출', 거칠고 마른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쌀쌀 아픈 배가 기분좋게 편안해지던 어머니의 '약손' 등에 대한 글을 읽다보면 문득문득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게 된다.

2부는 문학과,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야기다. 조금은 딱딱한 부분일수도 있지만 읽고 나면 아주 쉽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기분이 든다. 8·15 해방을 맞아 '한글'로 된 소설을 섭렵하던 시절, 눈을 확 뜨게 만들었던 이태준의 '상허 문학독본'(작가들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글쓰기 교본으로 자리잡은 이 책은 1940년 '문장강화'라는 이름으로 출간됐고,1988년 창작과 비평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나왔다), 드물게 '말과 글'이 모두 뛰어났던 함석헌 선생의 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3장은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다. 하루 이틀 사이로 50년을 해로한 노부부의 금혼식과 새내기 부부의 주례를 서면서 느낀 감정, 사망자의 이름을 찾기 어려운 신문의 부고란에서 떠올리는 인생무상 등이 펼쳐진다.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은 날카롭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신랄한, 날 선 비난과는 거리가 멀다. 예리하지만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가 바탕이 깔린 그의 '발언'은 그래서 더 뜨끔하다. 〈현대문학·9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허구 세계 차모니아 무대 판타지

루모와 … 발터 뫼르스 지음

전세계적으로 팬을 가지고 있는 독일 작가 발터 뫼르스의 '루모와 어둠 속의 기적'(전 2권)이 번역, 출간됐다. 책은 지난해 출간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꿈꾸는 책들의 도시'(들녘 펴냄)의 전작.

'루모와 어둠 속의 기적'에도 작가의 상상력은 멈추지 않는다. '꿈꾸는 책들의 도시'가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번엔 과학적 상상력이 동원됐다. 상상 속 허구의 세계인 차모니아 대륙을 무대로 한 것은 같다. 이 외 '푸른곰 13과2분의1 인생', '엔젤과 크레테'를 포함한 4권의 소설이 '차모니아 연작'이다.

주인공 루모는 타고난 싸움꾼 '볼퍼팅어'다.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잡혀 어렸을 때부터 악마바위에서 자란 루모는 스승 스마이크를 만나 자신이 볼퍼팅어라는 것을 알고 외눈박이 거인들을 하나씩 물리친다.

소설 곳곳에서 저자의 유머와 위트 그리고 인생철학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책이 단순한 판타지 소설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이다. 〈들녘·각권 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시로 승화시킨 아버지에 대한 기억

우주 돌아가셨다 박라연 지음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로 등단한 보성 출신 시인 박라연씨가 '공중 속의 내 정원'(문학과지성사 펴냄) 이후 6년여 만에 새 시집을 냈다.

'우주 돌아가셨다'. 제목이 독특하다. 사실 '우주'는 30년 전 숨진 저자의 아버지 이름이다. 저자는 우주의 삶에 다가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기억들은 양조장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해 이제야 헤아려지는 아버지의 고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술과 죽음은 저자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

저자는 근원적인 통증을 앓음과 동시에 해소하는 과정을 유연하면서도 무르익은 언어로 노래한다. 용서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품을 지니고자 하는 저자의 욕심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시인들의 '신성한' 우주는 저자에 의해 하나의 종교가 된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아니고 내가 죽이고 살리기를 반복한 신"의 종교로 말이다. 〈랜덤하우스 중앙·6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정중헌의 '천경자의 환상여행'

"그는 평생 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독을 멍에처럼 달고 살았지만 그 한과 고독은 슬픔과 외로움에 지친 탄식이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한 감정이기도 했다. 작가는 인생이라는 굴곡 많은 삶 속에서 작가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한과 고독을 죽도록 사랑하고 매달렸으며, 결국은 순수로 걸러진 에센스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천경자의 환상여행' 중에서

20대 청년 시절이었나. 몇 번의 인생의 고배 속에 늦깎이로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보내던 시절, 미칠 듯이 다가오는 바람이 좋아 들녘 끝까지 알 수 없는 절망과 동행하며 길을 걸었던 나날이 있었다.

그때는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취해 있었고 삶은 화실바닥에 제멋대로 누워있는 찌그러진 주전자와 먼지 묻은 팔레트 같았다.

예술은 무엇이며 천형처럼 다가오는 예술가로 살아가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감에 젖어 있을 때 우연히 접한 천경자선생의 수필집 '한(恨),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묘한 동질성의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다.

화가이면서 뛰어난 문필가였던 천경자 선생의 글은 짙게 드리워진 어떤 슬픔이 묻어 있었고 깊은 심연을 간직한 화가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문체를 지니고 있었다. 한과 춤추는 환상, 절망과 환희가 어우러져 때로는 심연 속에 소리 없이, 때로는 휘몰아 치며 나를 흔들어 놓았다.

恨을 사랑한 예술가

이후 삼십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얼마 전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선생의 미공개작, 미완성작, 드로잉과 스케치 대표작들을 모은 축제형식의 '내·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 전시회가 열렸었다.

이 책 '천경자의 환상여행'(나무와 숲)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젊은 기자시절 문화부기자로 지내면서부터 화가 천경자 선생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 왔고 오랫동안 취재해 왔으며 나중엔 기자의 시각을 넘어 인간적으로 선생을 흠모했던 저널리스트의 화가에 대한 고백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천경자 선생의 한과 사랑, 치열했던 예술가로서의 삶의 과정, 화가의 육필 전시회 서문, 화가의 대표작, 천경자선생의 중요한 화력중 하나인 스케치기행들을 통해 전설과 신화로 남겨지려 한 화가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저자는 슬프게도 화사한 천경자 선생의 작품세계에 담겨 있는 한과 사랑을 선생의 작품과 연계시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를 예술가의 고독감과 치열함속으로 인도한다.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은 천경자 선생의 육필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화가로서 많은 글을 남겼던 선생의 자전적인 고백이 화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진실한 통로이기 때문이리라.

이 책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 미술평론이 아닌, 화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거기서 얻어진 인간적인 앎을 통해 화가의 생애와 작품을 시와 소설과 평론을 섞은 것 같은 문장으로써 써내려가 감동을 준다.

먼 이국땅 뉴욕에서 82세의 노구로 병상에 누워 있는, 평생을 한과 그림으로 살았던 화가에 대한 한 편의 고백서며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매력에 많은 독자들이 빠져 보길 권한다.

한 희 원
〈서양화가〉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충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도청옆 70평 5층 20억
·운림동 중심사도로접 3백평 170만
·남동 대지25평 3층건물 2억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로접 330평 당350만
·광천동 터미널 대로접 2백평 당750만
·상무지구 상업지 120평 당1200만
·주월동 대동고 대로접 78평 4층 6억
·주월동 장미아파트앞 대2백평 당250만
·봉선동 삼익아파트옆 대82평 당250만
·용봉지구 3면도로 대360평 현식당 당250만
·송정동 전철역앞 대1800평 당350만
·하남 우산동 상업지 2백평 9억
·운남동 아파트밀집지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지산동 보전녹지 1천평 당35만(주택가)
·운림동 대280평 당40만
·운림동 보전녹지 전340평 당30만 (주택허가30평)
·광주댐 인근 대지, 전 5백평 주택1동 당50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임야 3천평 당5만
·화순 사평 물가접 8백평 주택1동 1억
·화순 동면 관리지역 임야5천평 당2만
·담양읍 자연녹지 4500평 2차선도로접 당15만
·화순 사평 대2백평 주택1동 4천만

기타 부동산
·운림동 개발제한구역 임야2만5천평 당3만
·소태동 임야1만3천평 주택1동 당1만5천
·담양 월산 임야6만평 당3천원
·화순 사평인근 계곡접 임야14만평 당4천원
·화순이양 계곡접 임야4만평 당2천원
·청풍동 4수원지인근 취락지 250평 당60만
·화장동 자연녹지 350평 당30만
·첨단 산월동 자연녹지 750평 당50만
·선암동 호대옆 자연녹지 9백평 당50만 4천평 5억(교환가)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동호인을 모십니다

믿음공인중개사
☎(代)971-4911,8 핸 011-627-0876
(첨단지구 60m대로변 미래이비인후과 건물1층)

상가 건물 매도
첨단 쌍암동,월계동,상업지역
·대지180평 건평368평 보9,000 월세 850만원 매도가9억5천
·대지180평 건평120평 유흥주점 통10개 매도가7억3천
·대지114평 건평127평 1층음식점 2층주택 매도가7억5천
·대지135평 건평272평 보1억5000 월세 650만원 매도가9억7천
·대지130평 건평330평 보1억2000 월세 800만원 매도가12억
·대지 570평 건평1234평 보10억 월세 2200만 현재공실 360평 병원, 화원, 사무실 각종매장 적합 매도가57억

첨단 쌍암동,월계동,상가임대
·1층 50평,100평,70평
·2층 200평,150평, 90평,120평
·3층 200평,100평,70평,92평,114평,150평 등 다량보유

첨단지역 상업지역
·토지 1600평, 508평, 250평, 100평, 570평, 140평, 200평 다량보유

자연녹지, 생산녹지, 임야
하남공단인근, 수완동, 안청동, 진곡동, 신용동, 고룡동, 장수동, 산정동
(204평, 4600평, 5000평, 900평, 1200평, 700평, 9500평, 3000평, 1300평)

장성군, 남면, 진원면, 동화면, 담양군, 대전면, 대치, 수북면, 월산면
(2230평, 365평, 2700평, 1400평, 3000평, 10000평, 2700평, 1000평, 보유)

부동산교환(토지, 건물) 지역관계없음

하이랭크 컨설팅
☎(代)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구.상무대입구)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급매물건을 팔아드립니다.

◉병원, 학원부지
•상무지구 120평 평당 1,000만원
•상업용지 600평 평당 950만원
•상무지구 670평 평당 900만원

◉병원, 학원부지
•마륵동 생록 770평 평당150만원
•마륵동 생록 400평 평당250만원
•상무지구 500평 평당 670만원

◉식당 및 오락실부지
•상업용지 195평 평당 800만원
•서구 2000평 매매가 12억 장기투자로도 적합함

◉창고 및 회사사옥
•광산구 4000평 지녹 평당65만원
•마륵동 생록 1000평 평당 135만원

◉골프연습장 적합한 땅
•약2000평 평당 190만원

◉건물매매
•보증금 32억 월세3000만원 매매가 78억
•보증금 3억 월세1000만원 매매가 17억

◉땅투자
•상무지구 1300평 평당900만원
•매월동 2300평 평당120만원
•풍암동 보전녹지2만평 평당3만5천원

◉땅투자
•광산구 4000평 평당68만원
•벽진동 1,500평 평당75만원(군보지역)
•벽진동 1,600평 평당65만원(군보지역)

◉부동산투자(컨설팅)
•100억 투자 월2억수입
•70억 투자 월1억5천만원 수익
•150억 투자 월3억 수익

◉건물매매
•상무지구 보증금 3억 월700만원 매도가격 17억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오.

★ 24시간 물건접수 및 상담환영 ★
전화상담 011-609-5221 팩스접수 383-5221
메일접수 leechulgil@hanmail.net

전원공인중개사
www.전원중개사.com
송정:송정역 건너편 945-0005, 010-4629-0989
운남:운남동 삼성아파트 상가내 951-3000, 016-681-3210

토지매도
◉광산구 송정동 사랑병원~송정역사이 6차선 대로접 50평 평당 300만원
◉서구마륵동 답 908평 도시철도 공사뒤 평당 130만원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임야 2000평 광주~영광 신설도로접 매매가 상담후 결정
◉나주-송정간 대로접 폐교부지 3370평(숙박시설,일반음식점, 사우나,학원 등 적합) 급매 평당 45만원
◉여수시 돌산대단위 택지앞 해안도로접 980평 평당80만원 급매
◉북구 동림동, 생산녹지 1210평 평당70만원(급매)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60미터 계획도로접 1210평 평당80만원
◉광산구 산정동 3200평 도로접 평당80만원
◉광산구 산정동 도로접 724평 평당80만원
◉광산구 송정동 구.광산경찰서앞 사장입구 사거리코너 338평 평당 350만원
◉광산구 신기동 하남대로변 824평 평당320만원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관리지역 1379평 평당8만원(급매)
◉광산구 도산동 카이스트빌 앞 하나로마트옆 115평 매200만원
◉광산구 도산동 도산역앞 344평 평당350만원
◉광산구 도산동 4차선도로접 471평 평당 250만원
◉광산구 도산동 파람새예식장부근 70여평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정동 사랑병원앞 6차선도로 코너 평당400만원
◉북구 생용동 일반주거지역 162평(주택포함) 평당 80만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원 300-23만평까지 물건 다량보유 평당 7만원~130만원까지
◉광산구 송정동 5일시장입구 신협 건너편 124평 평당400만원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대로접 52평 평당150만원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차선 대로접 52평 620평 평당8만원(현진디빌)
◉광산구 소촌동 계획도로접 180평 평당70만원
◉광산구 복룡동 대로접 932평 평당170만원
◉서구 풍암동 77평 제이마트뒤 평당 370만원(급매)

상가매도
◉남구 백운동 6차선 도로접 3층 건물(A.Btjfcl) 병원적합 2005년 12월 준공 매 11억

오피스텔
◉신안동 오피스텔 45평 1억5천

임야매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14만2천평 매3억(급매)
◉광산구 지죽동 황룡강변 3300평 매1억6천5백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차선 도로접 관리지역 6만4천평 평당9만원 조정가능

주상겸용 주택
◉북구 오치동 도로접 4거리코너 3층 겸용주택 대지65평 건평100평 매매가 2억

★투자자 대모집(소액 대 환영) ★
• 지리산 일원 펜션부지 다량 보유 •

한 일 지 도(주)
☎(代)529-1409, 핸 010-2466-1409
(지산동 법원앞)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번에 새로 나올 광주시 책은
①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곳 수록
②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선 수록
③ 해제된곳 안에 자연녹지, 공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 역세권 1, 2지구 바운다리 수록
★ 동구 용산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 동구 월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벤처타운 부지 수록
★ 광주 무안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 I·C수록
★ 광주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 수록
★ 하남2지구내 APT 배치도 수록
★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치도 수록
★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산정동 골든뜨레빌 APT 배치도 수록
★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동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동공단 추가 수록
이외, 지적분할 및 신구 APT, 용도지역, 계획선 등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표기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출력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확대·축소가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 도(주) 〈운암주유소뒤〉
☎ 527-6310, 핸 011-9433-6310